다산포럼

다산과 '반 잔'의 철학

박 종 권
호서대학교 AI융합대학 교수

인간이 계획을 세우면 신은 비웃는다고 했다. 내일 일을 어찌 알겠나. 그래도 칠흑 같은 인생행로에 방향은 잡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비록 도돌이표가 거듭되는 '링반데룽'(Ringwanderung: 등산에서 짙은 안개 등을 만났을 때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지점을 맴도는 일) 일생일지라도 말이다. 마침 정초이다.

작심삼일이라 했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젊을 때는 성취 지향적 목표를 세운다. 중년이 되면 대체로 스스로 삼가는 수양 지향적으로 변한다. 대표적인 것이 금주와 금연이다. 혹자는 말한다. 담배를 끊기는 쉬워도 술 끊기는 어렵다고. 고체인 담배는 가위로 싹둑 자를 수 있지만, 어디 술은 칼로 벨 수 있겠나. 그보다는 담배가 스스로 문제라면, 술은 더불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이야 더더욱 외롭지 않겠는가. 그러니 '금주(今週) 금주(禁酒)', '금년(今年) 금연(禁煙)'이라면서 애써 자신을 위로하는 것 아닌가.

다산 정약용은 술을 그다지 즐기지 않았던 모양이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자식들에게 술을 경계하는 내용이 있다. 그럼에도 정작 자신의 주량은 제법이었던 듯싶다. 다산이 벼슬하기 전이다. 중희당(重熙堂)에서 세 번 일등을 했다. 중희당은 정조(正祖)가 원자(元子)를 위해 세웠는데, 임금이 대대로 현명하여 태평성대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여하튼 다산은 옥(玉) 필통 가득 담은 소주를 마시게 됐다. 그때 "나는 오늘 죽었구나" 했다는데, 그럼에도 그다지 취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하루는 춘당대(春塘臺)에서 왕과 학사들이 고권(考券)하면서 맛난 술을 큰 사발로 마셨다. 여러 학사들이 곤드레만드레 정신을 잃어 남쪽을 향해 절하는가 하면 자리에 누워 뒹굴기도 했다. 원래 임금은 북악산 아래 있어 신하는 북면(北面)하여 절하는 것이 법도이다. 그런데 방향을 잃어 남면(南面)해 절하고, 어전(御前)임에도 취해서 뒹굴었다는 것이다.

다산은 "시권(試券)을 다 읽고, 착오 없이 과차(科次)도 정하고, 물러날 때 조금 취기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단한 술 실력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반 잔 이상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바로 '반 잔의 미학'이다. 본디 술맛이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고 했다. 소가 물을 마시듯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절대 술맛을 알 수 없다는 거다. 입술과 혀에 적시지 않고 바로 목구멍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맛을 알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모두가 혀에 퍼져 있는 미뢰를 통해 느끼는 것 아니던가.

술을 마시는 정취 또한 살짝 취하는 데 있다고 결론짓는다. 얼굴빛이 홍당무처럼 붉어지거나 구토를 하고 잠에 곯아떨어진다면 술 마시는 정취가 없다는 것이다. 이태백도 '한 잔, 한 잔에 또 한 잔'을 읊었지만, 친구에게 "나 졸리니 그대는 가라"고 하지 않았나. 예의 없이 배웅도 안 하고.

다산이 술을 경계한 것은 목민관으로서 자세가 몸에 뱄기 때문이리라. 낮술은 물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도 술자리를 피하려 했던 듯하다. 이리저리 얽히고설키다 보면 청탁에서 자유롭지 않다. 술이야 청탁(淸濁) 불문이지만, 관리에게 청탁(請託)은 요즘 같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실사구시 주도(酒道)인 셈으로, 다산의 시에 송강 정철의 서정(抒情)이나 이백의 호방함이 엿보이지 않는 연유일 게다.

'반 잔' 철학을 내세운 다산은 '뿔 달린 술잔'을 소개한다. 옛날 중국에서는 한 번에 들이킬 수 없도록 도자기 술잔에 뾰족한 뿔을 달았다. 공자도 제자에게 각잔(角盞)을 권했다. 한데 '반 잔'의 절제가 어려웠나? "뿔 달린 술잔이 뿔 달린 술잔 구실을 못하면 어찌 뿔 달린 술잔이라 하겠나" 탄식했다니 말이다.

술 이야기가 길었다. 핵심은 '반 잔'이다. 제나라 환공이 늘 가까이 두었다는 '좌우명'(座右銘: 자리 오른쪽에 두고 마음에 새기던 술독)도 그렇다. '각잔'과는 다르나 가득 차면 기운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바는 같다. 술도 물도 가득 차면 넘친다. 포부도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여유 없이 몰아붙이는 국정도 자칫 후회를 남기기 십상인데, 정치도 그렇다. 반쯤 비었을 때 화합과 통합의 공간이 있다. 이미 가득하다면 비워야 바로 설 것이다. 부디 새해엔 모두가 '반 잔의 미학'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NGO칼럼

한수원, 공기업으로서 책무 다해야

김 종 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영광 한빛원전 6호기가 지난 7일 제13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다. 계획 예방 정비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약 18개월 주기로 발전을 중단하고 설비 검사와 점검, 정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계획 정비 기간 동안 새로운 핵연료봉 장전, 발전 설비 점검, 노후 설비 교체 등이 이루어진다. 한빛 6호기도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지하고 증기발생기 교체, 원자로 헤드 관통부 점검, 원전 교체 등 점검 보수 작업을 한다. 5개월의 정비 기간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한빛 6호기 제13차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지난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 5호기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 용접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두산중공업을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부실 용접 사실을 시행사인 한수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서 조작 의혹까지 있어,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 용접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수원은 이번 6호기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 진행될 원자로 헤드 관통부 용접 시공을 다시 두산중공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한빛 5·6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용접부 개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불량 확인과 규제 기관 및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과 한빛 6호기 폴라크레인 정비 용역을 체결하였고, 한빛 6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부 개선 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공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공사·납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금 몰수, 구상권 청구, 재입찰 제약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산중공업을 고소까지 진행한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러한 행위는커녕 추가 계약을 맺고, 같은 용역 수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은 공익 제보에 의해 알려져 조사가 시작되었다. 만약 제보가 없었더라면, 원자로 헤드의 부실 용접 사항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상태로 한빛 5호기가 가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제보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 운영, 관리 감독, 규제 전반의 실종을 보여 주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언제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일하고 관행적이며 폐쇄적인 체계를 바로잡고, 전문성·합리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도덕성에 기반한 운영·관리 감독·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한수원의 입장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고 또 다시 같은 공사를 맡기는 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기이한 처사이고,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 사건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한수원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작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도 모자란 판국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시공사에게 똑같은 공사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한빛 5·6호기 설비 개선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두산중공업과의 계약을 이행한다면, 한수원에게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배임 행위를 물어 반드시 법적인 책임도 지게 할 것이다. 한수원은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소홀히 듣지 않기를 바란다.

기 고

평생학습 도시 지자체장이 알아야 할 평생교육

서 동 균
한국평생교육연합회 이사장
교육학 박사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 시대에도 학습의 즐거움을 제일로 쳤다. 그처럼 즐거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럼에도 배움은 어린 사람이나 젊은이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학창 시절에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았다. 이제는 달라졌다. 평균 수명이 늘었고 세상도 변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 수 없게 되었다. '배워서 남 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바야흐로 평생학습 시대다.

인공지능(AI)이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등 과학의 발달이 눈부시다. 이제 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배움의 유효 기간이 짧아졌다. 그것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사회·국가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가는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했다. 지자체가 앞다퉈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 광역은 물론 기초자치단체도 뒤질세라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며 지역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5개 자치구가 모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전담 부서인 평생교육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전담부서 없이 단 한 명의 담당자가 평생교육 업무를 진행해 왔다. 다른 광역단체들이 국 또는 과 단위의 전담 조직을 갖추고 평생교육 업무를 패기 있게 추진한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를 너무 안타깝게 여긴 광주시의회에서 평생교육팀 신설을 제안했고 시 행정부가 이를 수렴해 조직 개편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평생교육 업무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자. 경기도 가평군은 최근 180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가평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군민 역량·행복 지수·의식 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군립 대학 역할까지 걸머지게 한다는 포부다. 김포시는 12개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전면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 주체를 교육지원과로 전환하고 전문성 있는 평생교육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조치다.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 사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 국 또는 과단위로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또한 평생교육팀에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가 시급하다.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단순한 행정 업무로 판단해선 안 된다.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인사가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평생교육팀 신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제도는 토대일 뿐이고 그걸 100% 잘 활용하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3~5년 뒤늦은 평생교육 정책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꼭 평생교육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의 수장 인선도 같은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사업 방향을 이해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전문가가 수장으로 가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전문가 수장이 있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각 동에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해 지역민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연구·조사·개발하여 평생교육을 실현시켜야 한다.

고령화 장수 시대에는 일자리 창출 만큼 삶의 질도 매우 중요하기에 평생교육에 대해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제도를 제대로 알고 슬기롭게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를 만들어 놓고도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하기 쉽다. 지자체장이 평생교육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다.

社 說

문 닫는 학교 늘어나는데 뾰족한 대책 없나

전남 지역에서 초중고교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1982년 이후 폐교된 학교가 800개가 넘는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 유출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시도별 폐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폐교 수는 전남이 82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729개, 경남 582개, 강원 460개, 전북 325개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3개, 광주 15개, 대구 36개, 부산 44개 등으로 대도시 지자체들과 농어촌 지역의 폐교 숫자는 크게 차이가 났다.

또한 2023년까지 신설이 예정된 학교들 역시 수도권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예정인 학교는 서울 6개, 인천 15개, 경기 56개 등 수도권이 77개로 전체(113개)의 68.1%를 차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북·강원은 각 1개, 전남·전북은 각 2개 등으로 폐교가 많은 시도일수록 신설 예정인 학교가 적었다.

이처럼 전남 지역의 폐교가 많고 신설 예정 학교가 적은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크게 준 데다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폐교된 전남 학교는 현재 남아 있는 전체 초중고 숫자(877개)와 거의 엇비슷할 정도다. 게다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가 전체의 40%가 넘는 상황이어서 폐교되는 학교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농어촌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고 그럴수록 폐교는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방 소멸에 앞서 학교 소멸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폐교 증가는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만큼 교육 당국은 작은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초중고를 연계한 통합학교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빛 6호기 '예방 정비' 또 부실 우려된다

한빛 6호기 계획 예방정비에 나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신들이 부실 공사로 고발한 두산중공업에 특정 작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아니냐며 거센 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얼마 전 한빛원전 5호기에 대한 계획 예방정비 기간 중 부실한 정비·점검 실태를 드러낸 두산중공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게다가 두산중공업은 5호기 정비를 마친 뒤 '원자로 헤드 관통관 1곳에서 용접봉이 잘못 선택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이후 원안위 조사 과정에서 2곳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겉핥기식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5호기 격납건물에서도 커다란 공극이 발견되면서 애초 시공·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다시 두산중공업에 정비를 맡기자 광주·전남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공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공사 납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금 몰수, 구상권 청구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두산중공업을 고소까지 한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러한 행위는커녕, 추가 계약을 맺고, 같은 용역 수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한수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또 다시 같은 사업을 맡기는 것은 주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체결한 설비 개선 용역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논어 병풍'

"온 천하가 얼어붙어서 찬 돌과 같이도 딱딱한 겨울날의 한가운데, 대체 어디서부터 이 한없이 부드럽고 깨끗한 영혼은 아무 소리도 없이 한들한들 춤추며 내려오는 것인지." 목포 출신 수필가이자 독문학자인 청천(聽川) 김진섭은 1939년 월간 종합 잡지 '조광'(朝光)에 발표한 '백설부'(白雪賦)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백설을 '천국의 아들이요, 경쾌한 족속이요, 바람의 희생자'라 했다. 또한 "무어라 해도 겨울이 겨울다운 서정시는 백설, 이것이 정숙히 읊조리는 것이니"라고도 했다. '도회인'으로서 눈을 관조적·서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한겨울 혹한을 묘사한 또 다른 글을 읽어 본다. 정민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가 지난 2000년 출간한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열림원 펴냄)에 나오는 내용이다. '책만 읽는 멍청이'(간서치, 看書痴)라고 불렸던 조선 정조 때 실학자 청장관(靑莊館) 이덕무 선생의 글을 모은 책이다. "내가 거처하던 작은 띳집이 몹시 추웠다. 입김을 불면 성에가 되곤 해, 이불깃에서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났다." 결국 엄동설한에 '한서'(漢書) 한 질을 이불 위에 늘어놓고, '논어' 한 권을 뽑아 세워 황소바람을 막아 얼어 죽기를 면하는 한 서생(書生)을 상상해 보라.

폭설을 동반한 '북극 한파'가 지난 주말 한반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눈이 펑펑 쏟아지고, 영하 10~20도의 한파가 몰아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서 수도계량기 7207건, 수도관 314건이 동파 피해를 입었다. 또한 시설감자와 다육식물 등 농작물이 동해를 입었고, 양식장에서 키우던 숭어도 동사했다. 아득하게 먼 북극의 위력이 코앞에 불쑥 닥쳐온 듯한 느낌이다.

동식물이나 인간 모두에게 한겨울 추위는 매섭다. 오히려 식물은 겨울을 나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머지않아 봄은 찾아오고 눈 속에서 복수초(福壽草)는 꽃망울을 터뜨릴 것이다. 우리 역시 조금은 여유를 갖고 주변의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며 '마음은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면 좋겠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